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8월 3일 18:00 이후부터 취급
하여 주십시오.

제 목 : 한국은행, 국내 생산 금 매입 협력 체계 구축

- 한국은행은 국내 생산 금 매입*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금 생산업체, 한국거래소(KRX), 한국예탁결제원(KSD)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, 최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음

* 자세한 내용은 '<붙임> 국내 생산 금 매입 방안' 참조

- 기존 금 매입 방식 외에 국내 생산 금 매입 채널을 새롭게 확보 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금 매입 경로를 다변화하고, 중장기적인 금 보유 비중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
- 아울러 금 보관장소를 분산하고 외환보유액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
-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생산 금 매입 기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

문의처 : 외자운용원 운용기획팀 팀장 이창현(02-759-5202), 과장 김보현(5194)

E-mail. bokdrmi@bok.or.kr

공보관 : Tel. (02) 759-4015, 4016

"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

<붙임>

국내 생산 금 매입 방안

- 한국은행은 KRX·KSD가 운영하는 국내 금시장(KRX 금시장)의 거래·결제·보관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금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국제 금 시세를 기준으로 매입할 예정
 - 금 생산업체의 해외 수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금 생산업체가 거래 가능 물량과 희망 시기를 한국은행에 제시하면,

한국은행은 금 운용계획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
 - 해외 수출 예정 물량을 대상으로 거래함에 따라 국내 금시장에 추가적인 수요를 유발하지 않아 국내 금 수급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
 - 또한 KRX 금시장의 장내 일반매매가 아닌 협의대량매매 방식을 활용하여 장중 시장 영향을 최소화
 - 거래당사자 간 가격·수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조건으로 체결함으로써 장내 호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를 수행
- 국내 생산 금에 대한 실제 매입 시기는 금 거래 관련 제반 준비사항, 금 생산업체의 수출 계획 및 한국은행의 금 운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

<참고>

「국내 생산 금 거래 협력체계 구축」 행사 사진



주: 왼쪽부터 한국예탁결제원 김용창 투자지원본부장, LS MnM 구본권 부사장, 한국은행 권민수 부총재보, 한국거래소 한구 부이사장